

문질(文質)의 상징 구조와 윤리적 긴장

— 문의 규범성과 질의 윤리성에 대한 고찰 —

서 주 영*

<目次>

- | | |
|-------------------|-------------------------|
| I. 서론 | 2. 야(野)·사(史)·빈빈(彬彬)의 의미 |
| II. 본론 | 3. 문질(文質) 결합 구조의 특징 |
| 1. 문(文)과 질(質)의 의미 | III. 결론 |

<중문초록>

本研究將《論語·雍也》中的“文質彬彬”重新詮釋為一種具有社會文化與國家權力意義的象徵結構。本文將“質”界定為使倫理價值實踐成為可能的規範性基礎，將“文”界定為涵括禮樂、典章制度、語言與書寫在內的文化形式化機制，即“象徵化的技術”。在此基礎上，本文將“野”解釋為質未能納入文之秩序而導致的象徵化失敗，將“史”闡釋為質缺失而形式過度的象徵化形態，並將“彬彬”理解為質與文並非固定融合，而是在質經由文而社會化的同時仍保持其規範基準性的調節性張力結構。同時，通過對“述而不作”原則及《春秋》敘述方式的分析，本文論證文並非單純表達質的工具，而是重構並規訓質的解釋權力結構。由此指出，“文質彬彬”並非形式與內容的均衡，而是倫理之質在制度化象徵機制之文中得以社會可見並受到規制的結構，其正當性唯有在“義”作為倫理規範持續發揮判斷功能時方能成立。本文據此提出，將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文质关系理解为一种伦理性张力结构，而非固定调和状态的新的解释可能性。

I. 서론

본 논문은 ‘문질彬彬(文質彬彬)’을 내용과 형식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아가, 문(文)의 상징 질서와 질(質)의 윤리적 기층이 결합하는 구조로 해석하고, 그 관계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현재까지 문질에 대한 전문 연구는 많지 않다.¹⁾ 대체로 문예론과 수양론의 한 부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예론에서는 문질을 문채(文彩)와 실질(實質)의 조화 개념으로 분석하고, 동아시아 예술론과 문풍의 변동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²⁾ 수양론에서는 문질을 군자의 인격과 관련한 평어로 해석하여, 유가 인성론의 일부로 분석되었다.³⁾ 이상의 연구는 문질의 의미를 다양하게 고찰하고 있고, 또한 문질 관계를 도덕적 질과 그 표현 형식으로서의 문을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⁴⁾ 문질의 작동

- 1)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1편에 불과하다. 黃娟, 〈“文質彬彬”辯〉, 《중국언어연구》 제116집, 2025, 169-190쪽.
- 2) 심영옥, 〈공자의 문질彬彬 심미관과 조선시대 문인화론의 관계성 연구〉, 《동양예술》, 제25호, 2014, 254-281쪽. 조송식,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유가 문질론(文質論)의 수용과 변환〉, 《미학(美學)》, 제82권, 2016, 1-35쪽. 진예숙, 〈《論語》引用詩의 詩教論的 理解 -孔子的 學問觀과 文質論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33집, 2016, 413-433쪽. 南相鎬, 〈孔子的 文質彬彬의 文道論 研究〉, 《국제한국학저널》, 제3집, 2017, 56-84쪽.
- 3) 南相鎬, 〈공자의 문질彬彬(文質彬彬) 적 수양실천론〉, 《中國哲學》, 제3권, 1992, 227-243쪽. Jiangyingshun·신창호, 〈인격형성에 관한 공자의 교육방법 고찰: 예악(禮樂)교육의 미육(美育)적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학》, 제43호, 2020, 9-36쪽.
- 4) 조송식은 질은 생명 혹은 도덕성으로서 문을 통해 표현될 수 있고, 문은 질을 담보할 때 비로소 진실성을 획득한다고 분석했다. 조송식, 앞의 논문, 2016, 4-6쪽.

구조 혹은 그 성격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문을 상징적 질서로, 질을 윤리적 기층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질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한다. 문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선왕(先王)의 유문(遺文)으로서⁵⁾ 축적된 규범성에 근거하여 개체 존재의 질을 질서 안에서 의미화하고 가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공은 호표(虎豹)의 털이 문 속에서 의미화에 실패하면, 견양(犬羊)의 털과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비가시화된다고 하였다.⁶⁾ 이 서술은 문의 질에 대한 의미화와 가시화 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접근은 부르디외의 상징 권력과 일정한 유비를 지니지만,⁷⁾ 문질 관계에서는 질이 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통해 문을 유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질의 윤리성은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인의와 같은 도덕으로 고찰되었으나,⁸⁾ 그 윤리적 성격과 작동 구조에 관해서는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질의 문자적 의미와 《논어》의 기록을 중심으로 질의 윤리성을 분석하고, 질이 문을 유지하고 판단하는 작동 구조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문질彬彬’을 문의 권위와 질의 윤리가 긴장된 상태로 결합하는 상태로 재해석함으로써 유가의 문질 관계에 대한 심화된 재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남상호, 〈공자의 문질彬彬(文質彬彬)적 수양실천론〉, 《中國哲學》 제3집, 1992, 231쪽.

6) 《논어·안연(論語·顏淵)》, “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君子也! 駟不及舌.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鞞猶犬羊之鞞!”

7) 부르디외의 상징 권력은 세계에 대한 정당화 시각과 분할의 원칙인 지배자의 관점 노모스(nomos)가 피지배자에게 아비투스(Habitus)로 체화되어 피지배자의 망각을 생산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배 질서의 관점이 사회적으로 내면화되어 자연화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채오병, 〈부르디외의 국가: 상징권력과 주체〉, 《문화와 사회》 제26권, 2018, 223쪽.

8) 조송식, 앞의 논문, 4-6쪽.

II. 본론

《논어·용야》에서 공자는 문질 관계를 야(野)·사(史)·빈빈(彬彬)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면서, 문과 질이 어느 한 쪽을 초과하는 형태를 야와 사로 평가하고, 문질이 빈빈한 것을 군자의 존재 상태로 평가했다.

질(質)이 문(文)을 능가하면 야(野)하고, 문(文)이 질(質)을 능가하면 사(史)하다. 문질(文質)이 빈빈(彬彬)한 사람이 군자이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⁹⁾

— 《논어·용야(論語·雍也)》

한학(漢學)에서는 이 문질 관계를 실질(實質)과 문채(文彩) 사이에 구성되는 언행(言行)의 형식과 내용 관계로 파악했으며,¹⁰⁾ 문과 질이 어느 한 쪽을 압도하지 않는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상태인 ‘상반(相半)’ 혹은 ‘잡반(雜半)’을 이상적인 결합 상태로 해석했다.¹¹⁾ 송학(宋學)에서는 한학의 혼고를 계승하면서 문질 관계를 수양론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때 문질은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운다(損有餘, 補不足)”¹²⁾는 수행 결과로 이해되었고, 질의 도덕 실천을 선행적 근본으로 삼고 문의 학문적 도야를 후행적 형식에 배치하는 구조로 해석했다.¹³⁾ 청대(清代)에는 문질을 언행

9) 程樹德 撰, 程俊英·蔣見元 點校, 《論語集釋》, 中華書局, 1990, 400쪽.

10) 皇侃, “質勝文則野者, 謂凡行禮及言語之儀.” 皇侃, 《論語集解義疏》 卷四, 知不足齋叢書本 第七集.

11) 包咸, “彬彬, 文質相半之貌.” 邢昺, 《十三經注疏·論語注疏》, 北京大學出版社 1999, 78쪽. 鄭玄, “彬彬, 雜半貌也.” 馬國翰, 《論語古注·論語鄭氏注》 第4册, 無求備齋本.

12) 朱熹, “損有餘, 補不足.” 朱熹, 《新編諸子集成·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1983, 89쪽.

13) 朱熹, “如夫子言文質彬彬, 自然停當恰好. 子貢文猶質也, 質猶文也, 便說得偏. 夫子言行有餘力, 則以學文, 自然有先後輕重.”(朱熹, 《朱子語類》 卷第十九, 《文淵閣四庫全書》)

의 예(禮)로 재해석했는데, 문과 질이 각각 예의 본체와 형식이며,¹⁴⁾ 그 관계는 예의 근거와 실천이 어긋나지 않는 득중(得中)의 구조로 재해석 했다.¹⁵⁾

현대에는 고대 해석을 따라 박실(樸實)과 문채(文彩)의 관계로 해석하는 경향,¹⁶⁾ 혹은 문명적 관점에서 인간의 소박한 본질과 인문 문화의 관계로 해석하는 경향,¹⁷⁾ 혹은 내용과 형식주의의 대립과 같은 현대 철학 사유와 결합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¹⁸⁾

이상의 해석사를 보면, 한학에서는 실질과 문채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 접근했고, 송학에서는 도덕 바탕과 학문 수양의 균형 문제로 해석했으며, 청대에는 다시 예의 실천과 균형 문제로 전환되었다가, 현대에는 문명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개념으로 해석의 축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① 문질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역사론, 윤리론)를 중심으로, ② 문질 개념과 그 관계에 관한 분석(尚

14) 劉寶楠, “禮有質有文, 質者, 本也, 禮無本不立, 無文不行, 能立能行, 斯謂之中, 失其中則偏, 偏則爭, 爭則相勝.” 劉寶楠 撰, 高流水 點校, 《論語正義》, 中華書局, 1990, 233쪽.

15) 陳澧, “孔子說, 禮要得中, 有質有文, 不可偏重. 但人的性情, 各有所偏, 有偏在朴素一邊, 這是質勝過文, 就像個鄉里務農的人, 只有誠實, 不懂得儀節, 如何比得君子呢? 又有偏在華采一邊, 這是文勝過質, 就像個公門中管文書的人, 懂得儀節, 卻沒有誠實, 更算不得君子.” 陳澧, 《論語話解》卷三, 無求備齋本, 23쪽.

16) 楊伯峻, “樸實多於文采, 就未免粗野; 文采多於樸實, 又未免虛浮.” 楊伯峻, 《論語譯注》, 中華書局, 1980, 61쪽. 孫欽善의 《論語本解》과 陳耀南의 《論語》등도 비슷하다. 黃娟, <“文質彬彬”辯>(《중국어언어연구》 제116집, 2025), 176쪽 참조.

17) 南懷瑾, “質是樸素的本質; 文是人類自己加上去的許多經驗、見解, 累積起來的這些人文文化, ……; ‘質勝文則野’, ……; 文化淺薄, 則流於落後、野蠻. ……文如勝過質, 沒有保持人的本質, ‘則史’. ……如果質勝文, 缺乏文化的修養就不美. 倘使文勝質便很可能成爲書呆子.” 南懷瑾, 《論語別裁》, 復旦大學出版社, 1990, 282쪽, 283쪽, 287쪽.

18) 李澤厚, “文”在這裏指各種禮節儀式. 今日有的人豪放不羈, 言詞直爽流於粗野; 有的人恭敬禮貌, 談吐嚴肅, 卻流於死板. ……“文”也可以是某種“形式主義”、“文本主義”、條條框框、華麗裝飾一大堆, 似乎周全好看, 其實空腐不堪. 李澤厚, 《論語今讀》,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7, 115쪽.

文·尚質) ③ 현대적 재해석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¹⁹⁾ 이러한 연구 동향은 중국에서의 연구가 문질의 균형적 결합과 같은 전통 연구를 기초로 내용을 심화하고,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해석은 대체로 균형론적 시각으로 문질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질이 어떤 구조로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단지 문을 외적인 문채나 세련된 형식으로 해석하고, 질을 소박한 바탕 혹은 인의와 같은 일반 윤리로 간주한다면, 빈빈은 세련된 형식으로 표현된 윤리 상태로 축소되고, 군자는 교양과 도덕성을 조화롭게 체현한 존재로 이해될 뿐, 문과 질의 상호 작용을 품은 주체로서 해석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은 문을 질에 대한 의미화와 가치화를 조직하는 상징 질서로 해석하고, 질을 그 질서를 유지하고 비판하는 윤리적 기층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문질빈빈을 양자의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권위와 윤리가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룬 구조로 재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을 통해 문의 상징 질서적 성격과 질에 대한 작동 방식을 고찰하고, 다시 질의 의미와 윤리성을 분석하여 문에 대한 윤리 작용을 검토함으로써 문질의 결합 구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1. 문(文)과 질(質)의 의미

1) 문(文)의 상징 질서적 성격과 그 작동

문의 상징 질서란 문이 질을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질을 규범적 형식 속에서 의미화하고 배치하는 구조적 기능을 지칭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먼저 문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 문의 형식과 질서를 확인하고, 다시 유가 경전에서 그것이 예약과 전장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양

19) 마사오웨(馬曉珮)는 문질 관련 논문 148편을 분석한 다음, 연구 동향을 위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馬曉珮, <《論語》“文質彬彬”研究綜述>, 《開封文化藝術職業學院學報》第41卷 第3期, 2021, 39-42쪽.

상을 고찰한 다음, 마지막으로 문이 질에 대해 수행하는 형식화의 작용을 《논어》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문에는 질서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이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은 교착하여 새기거나 그린 것이다(文, 錯畫也)²⁰⁾

— 허신(許慎), 《설문해자(說文解字)》

따라서 문은 선을 교차하여 형성되는 배열의 무늬이다.

오색이 무늬를 이루었으나 어지럽지 않다(五色成文而不亂)²¹⁾

— 《예기·악기(禮記·樂記)》

이는 문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배열과 같은 형식의 정연함을 드러내는 형식적 장치이며, 나아가 질서와 무질서를 판별하는 의미 기능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가적 맥락에서 이러한 형식성과 정연함의 의미 판정은 단순한 시각적 무늬를 넘어서 사회 규범과 전장 제도의 질서로 확장된다.²²⁾

승고하구나 요임금께서 공업을 이루심이어! 예악 제도가 참으로 찬란하구나(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 《논어·태백(論語·泰伯)》

20) 《說文解字》, “文, 錯畫也.”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嶽麓書社, 1997, 1222 쪽.

21) 鄭玄注, 孔穎達疏, 《禮記注疏》卷三十八, 《文淵閣四庫全書》.

22) 《논어》에서 사용된 여러 문(文)의 의미 가운데 문교(文教)의 의미에서의 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黃娟은 문(文)을 7종으로 분류한다. ① 인명(人名)·시호(諡號), ② 문교(文教)·문덕(文德), ③ 문장(文章)·문헌(文獻), ④ 정신(精神)·내재(內在), ⑤ 문식(文飾)·수식(修飾), ⑥ 문치(文治)·문사(文事), ⑦ 문학(文學). 黃娟, 〈“文質彬彬”辯〉, 《중국언어연구》 제116집, 2025, 176쪽.

주나라는 하나라·은나라를 보면서 발전시켰으니, 그 문채가 찬란하구나!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周監於二代, 鬱鬱乎文哉! 吾從周).

— 《논어·팔일(論語·八佾)》

첫 번째 문장(文章)은 하·은·주 삼대 문화 체제를 지칭하며,²³⁾ 두 번째 예문의 문(文)은 정연하게 나타난 형태, 즉 문채(文彩)를 지칭한다.²⁴⁾ 따라서 문(文)이 전장(典章)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예악(禮樂)과 같은 제도적 규범과 결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칙이 질서 정연하게 존재하고 작동하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상징 질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양한 경학에서 왕조의 교체에 따른 문화 중심의 변화를 숭질(崇質)과 숭문(崇文)의 순환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상서대전(尚書大傳)》은 왕조의 문화가 근본인 질(質)을 선행하고, 이후 제도화 형식인 문(文)으로 고정된다는 문질 변화론을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적 상징 질서로 문질을 해석하고 있다.²⁵⁾

또한, 이러한 문은 수정과 조정 기능을 가진다. 주희는 “周監於二代”(《논어·팔일》)의 ‘監’을 ‘손익(損益)’으로 해석했는데,²⁶⁾ 이는 문이 전장제도로 구성되는 과정이 단순한 고정화가 아니라 손익과 조정을 수반하는 동적 질서 형성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논어》에서도 이러한 문(文)의 질(質)에 대한 작용 관계가 나타나는데, 주로 윤리적·수양적 측면에서 서술되어 있다.

23) 朱熹, “文章, 禮樂法度也.” 朱熹, 앞의 책, 1983, 65쪽.

24) 邢昺, “言以今周代之禮法文章, 回視夏、商二代, 則周代鬱鬱乎有文章哉.” 邢昺, 앞의 책, 1999, 36쪽. 朱熹, “尹氏曰: 三代之禮, 至周大備, 夫子美其文而從之” 朱熹, 위의 책, 1983, 65쪽.

25) 《尚書大傳》, “王者, 一質一文, 據天地之道.” 邢昺,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7쪽. 邢昺, “質法天, 文法地. 帝王始起, 先質後文者, 順天地之道, 本末之義, 先後之序也.”, “事莫不先其質性, 乃後有其文章也.” 邢昺, 위의 책, 2000, 27쪽.

26) 朱熹, “其視二代之禮而損益之.” 朱熹, 위의 책, 1983, 65쪽.

만일 장무중(臧武仲)의 지혜와 공작(公綽)의 탐욕하지 않음과 변장자(卞莊子)의 용기와 염구(冉求)의 재예(才藝)에 예악(禮樂)으로 문채(文采)를 내면 이 역시 완성된 사람(成人)이라 할 수 있다.(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 《논어·현문(論語·憲問)》

이 구절을 보면, 공자는 한 인물의 지혜, 탐욕 없음, 용기, 기예 등을 예악으로 교화할 수 있는 대상, 즉 질(質)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을 예악으로 “문지(文之)”하면 성인(成人)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이 개체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시 질서적 의미화인 “문지”를 통해 성인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이 문이 질을 형식화하여 유의미하도록 배치하는 적극적 작용을 보여준다면, 《논어·양화(論語·陽貨)》의 “육언육폐(六言六弊)”는 문의 작용이 결핍된 질의 형태를 보여준다.

인(仁)을 좋아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된다. 지식(知)을 좋아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허황되게 된다. 믿음(信)을 좋아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해치게 만든다. 정직(直)을 좋아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급하게 만든다. 용기(勇)를 좋아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지럽게 된다. 강함(剛)을 좋아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경솔하게 된다(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²⁷⁾

— 《논어·양화(論語·陽貨)》

여기서 호인(好仁), 호지(好知), 호신(好信), 호직(好直), 호용(好勇), 호강(好剛)은 모두 질(質)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형식화(文之)’하

27) 번역 출처: 임현규, 〈孔子的 ‘爲己之學’의 이념과 방법〉, 《동양고전연구》 제 36집, 2009, 12쪽.

는 것은 예악의 학습을 의미하는 호학(好學)이다. 만일 질이 ‘형식화’를 통해서 문의 질서로 수렴되지 못한다면, 인은 어리석음(愚)으로, 지는 허황됨(蕩)으로, 믿음은 해침(賊)으로, 바름은 급함(絞)으로, 용기는 어지럽힘(亂)으로, 강함은 경솔함(狂)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이 질을 조정하고 형식화하는 작용이 실패하여 조정되지 못한 질(質)의 반질서적 변형이며, ‘질이 문을 이기는(質勝文)’ 구조와 상응한다.

종합하면, 문은 문양의 배열에서 출발하여 질서잡힌 정연함의 형식화를 의미하는 상징 질서이다. 이 의미가 예악과 전장의 차원으로 확장될 때, 문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가시화하고 배치하는 형식화를 수행하는 상징 장치로 작동한다. 《논어》의 “예악으로 문체나게 한다(文之以禮樂)”와 “육언육폐(六言六弊)”는 문이 질을 적절한 자리로 배치하고, 그 의미를 질서 속에서 획득하게 하는 형식화 작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문은 외적 장식이나 표현 양식에 머물지 않고, 질을 사회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적합한 형태로 조직하는 상징 질서로 해석될 수 있다.

2) 질(質)의 윤리성과 문에 대한 작용

문이 질을 형식화하고 배치하는 상징 질서로 작동한다면, 질은 그러한 문이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을 유지하고 판정하는 윤리적 기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질의 기층적 혹은 바탕적 의미는 질과 유사한 의미인 박(樸)과 소(素)가 지칭하는 의미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우선, 박(樸)은 가공 이전의 나무를 뜻하는 문자이다.

박(樸)은 나무의 원형이다(樸, 木素也).

— 《설문해자(說文解字)》²⁸⁾

28) 湯可敬, 앞의 책, 1997, 776쪽.

이처럼 박(樸)은 장식이 조각되기 전의 나무가 가진 원형을 지칭하는 문자로서²⁹⁾ 가공 이전 단계에 있는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며, 그 핵심 의미는 문화화 이전의 자연성이다.

야생마를 조련하는 것과 같고,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若馭撲馬, 若養赤子).³⁰⁾

— 《순자·신도편(荀子·臣道篇)》

박마(樸馬)는 적자(赤子)와 대칭적 위치에서 훈육을 받기 전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즉 조련을 받기 이전의 말의 자연성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소(素)는 염색 이전의 비단을 뜻한다.

소(素)는 생명주이다(素謂生帛).³¹⁾

— 《예기·잡기하(禮記·雜記下)》 정현(鄭玄) 注

소(素)는 생명주로서 백색의 이미지가 강하므로,³²⁾ 가공 이전의 원재료의 특징을 지칭하며, 그 의미는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다.

본성을 돌아보고 자연스러운 것을 간직해서, 자기를 적게 내세우고 욕심을 적게 부리도록 해야 한다(見素抱樸, 少私寡欲).³³⁾

— 《노자(老子)》 제19장

29) 《說文解字》 段玉裁注, “以木爲質, 未彫飾如瓦器之坯然.” (이하 段注)

30) 王鳳陽, 《古辭辨》, 北京: 中華書局, 2011, 957쪽.

31)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注疏》 卷四十三,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이하 《文淵閣四庫全書》로 서술함)

32) 단주(段注), “그렇다면, 생백(生帛)을 소(素)라 한 것은 삶은 비단을 연(練)이라 한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 색이 희어서, 일반 흰색을 지칭하는 문자이다(然則生帛曰素, 對練緇曰練而言, 以其色白也. 故爲凡白之稱).” 胡安順 主編, 《說文部首段注疏義》, 北京: 中華書局, 2018, 691쪽.

33) 안기섭, 〈楚簡本『老子』의 ‘道’에 대한 바른 이해〉 제68호, 《중국인문과학》, 2018, 403쪽.

이 글에서 소(素)는 무사(無私)와 과욕(寡慾)의 상태로서 사욕(私慾)으로 물들기 전의 마음 상태를 지칭하며, 그 의미는 꾸밈없는 모습, 깨끗함, 평소의 자연적 모습을 은유한다.

이처럼 박(樸)과 소(素)가 인위적 가공 이전의 원초적인 자연성의 의미에 가까운 뜻을 지닌다면, 질(質)은 사물 구조의 기초를 의미한다.

《광아(廣雅)》, “질은 기초이다(質, 地也).”³⁴⁾

다음과 같은 단어는 모두 질(質)에서 파생된 것이다.³⁵⁾

질(礪): 기둥 밑을 받치는 주춧돌.

질(櫛): 기물(器物)의 다리.

이 단어들은 가시적·기능적 현상을 뒷받침하는 하부 토대가 되는 사물들이다. 그렇다면 질은 구조를 떠받치는 기초로서의 바탕 혹은 기층이 된다.

둘째, 질이 구조를 떠받치는 기층을 뜻한다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기층성이 가치의 보증과 그 근거라는 윤리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을 질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 유추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질(質)의 문자 의미를 보면, 사물(斤)이 돈(貝)으로 교환되기 위해서 성립하는 가치이다.³⁶⁾ 사물이 담보로서 작동하려면, 해당 사물의 가치가 상호 합의된 가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³⁷⁾ 즉, 사물의 교환 주체 사이에는 성신(誠信)의 윤리가 요청된다. 또한 저당과 같은 경제활동

34) 王鳳陽, 앞의 책, 2011, 957쪽.

35) 王鳳陽, 위의 책, 2011, 957쪽.

36) 黃娟, 앞의 논문, 2025, 178-179. 《說文解字》, “質, 以物相贅.” 朱駿聲, “以錢受物曰贅, 以物受錢曰質.” 李學勤 主編, 《字源》,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2, 573쪽.

37) 《周禮·天官·小宰》, “聽賣買以質劑.” 鄭玄注, “質劑, 謂兩書一割, 同而書之, 長曰質, 短曰劑. 傳別質劑, 皆今之券書也.” 李學勤, 위의 책, 2012, 573쪽.

“君子義以為質，禮以行之，孫以出之，信以成之，君子哉！”

— 《논어·위령공(論語·衛靈公)》

주희의 주석을 살펴보면,⁴²⁾ 질의 의(義)는 사건에 대한 규범적 근간으로서 예(禮)의 실천적 근거이며, 예는 이러한 의를 상징 질서의 형식으로 구체화한 절문(節文)이다. 그리고 겸손은 예의 형식 조율을 통해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신(信)으로 이러한 과정을 완성하므로, 질의 의는 예의 합당함을 판단하는 윤리성을 요청한다. 따라서, 성신이 질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윤리라면, 의는 그 질과 그 형식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규범적 원리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질은 상징 질서인 문의 기초이며, 성신을 통해 그 질서를 지속시키고, 의를 통해 그 정합성을 판정하는 윤리적 기층으로서 문에 대한 순응과 비판 윤리로 작동한다.

2. 야(野)·사(史), 빈빈(彬彬)의 의미

1) 야(野)와 사(史)

야(野)는 지리적 장소 개념이지만 문화 권력 구조에서 생성된 언어이다. 고대 지역 구분법에 의하면, 한 지역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는데,⁴³⁾ 야(野)는 도성의 외곽 지역 경제 생산지로서 농민의 거주지다.

구분	성격
도(都)	권력 중심지. 귀족·왕실
교(郊)	도성 외곽, 도와 야의 완충·중간 지대. 중소 지주·관료·상공인
야(野)	경제 생산지. 교외(郊外). 농민 거주.
비(鄙)	야에서 먼 곳. 국경 접경지.

42) 朱熹, “義者, 制事之本, 故以為質幹, 而行之必有節文, 出之必以退遜, 成之必在誠實, 乃君子之道也.” 朱熹, 앞의 책, 1983, 165쪽.

43) 王鳳陽, 앞의 책, 2011, 431쪽.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할 수 없다(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

— 《맹자·등문공상(孟子·滕文公上)》

이처럼 춘추·전국시대의 야(野)는 사람을 지칭할 경우 농민·농노들을 의미하며,⁴⁴⁾ 정치 권력적 지리 구도로 본다면 권력 중심 외부에 존재하는 생산 기반 지역이다. 이런 점에서 야(野)는 중심에서 떨어진 외부 공간이며, 교화되지 못하고 정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심의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 지역이라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문질에 대한 평어로서의 야(野)의 ‘거칠음’은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는 문화 권력적 시각이 투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질승문(質勝文)’의 의미는 상징화 형식인 문(文)에 의해 승인받지 못하고, 질서 외부로 배치된 질(質)의 양태이며, 동시에 그 중요성으로 인해 문의 질서 안으로의 조정을 요청하는 권력적 속성을 지닌다.

사(史)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⁴⁵⁾ 이 문자가 지칭 하는 범위는 왕의 일과 국정을 기록하는 사관(史官)도 있지만, 정부 여러 기관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기록관도 지칭한다.

관리가 마을 기록관(閭史)에게 알리면, 마을 기록관은 두 장을 만든다. 하나는 마을 관서에 두고, 하나는 주의 기록자(州史)에게 전한다. 주의 기록자는 주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주의 관리자는 주의 관서에 보관하도록 명령한다(宰告閭史, 閭史書爲二：其一藏諸閭府, 其一獻諸州史. 州史獻諸州伯, 州伯命藏諸州府).⁴⁶⁾

— 《예기·내칙(禮記·內則)》

이 기록은 민간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관련 정보가 문서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문의 질에 대한 작용으로서의 사(史)는 현상과

44) 王鳳陽, 앞의 책, 2011, 431쪽.

45) 許慎, 《說文解字》, “史, 記事者也.” 胡安順, 앞의 책, 2018, 109쪽.

46) 鄭玄注, 孔穎達疏, 《禮記注疏》卷二十八. 《文淵閣四庫全書》.

형식 사이에서 문(文)의 상징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로서 사건을 국가적·사회적 의미로 환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치는 사(史)에게 상징화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제거하거나, 대응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재구성해야 하는 규범화의 압박을 형성한다. 주희는 내용 과잉의 경우는 ‘듣고 배운 것이 많아서(多聞習事)’라고 비판했고, 내용 부족의 경우 ‘성실하지 못하다(誠或不足)’라고 문책했다.⁴⁷⁾

이런 의미에서, ‘문승질(文勝質)’은 사(史)가 수행하는 문의 상징화 기능이 규범화의 압력 속에서 형식의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형식화로 기운 상태로서, 문(文) 과잉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야(野)와 사(史)는 모두 질(質)과 문(文)의 불균형을 말하지만, 문자적 의미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문의 질서를 우월한 규범으로 전제하고, 질이 문 안에 규범적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통제의 언어로서, 질의 정합적 구성을 통해 문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문화 권력적 성격을 나타낸다.

3) 빈빈(彬彬)

‘빈(彬)’자는 문질(文質)이 갖추어진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문자이다.⁴⁸⁾ 이 단어의 용례 가운데 선진 문헌의 경우, 《예기(禮記)》의 예악(禮樂)에 관한 정현(鄭玄)의 주석에 보인다.

악(樂)은 같음을 위함이다. 예(禮)는 다름을 위함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한다. 악이 과하면 흐트러지고, 예가 과하면 분리된다. 감정을 하나로 하고 형식을 드러내는 일이 예악의 일이다. 예의가 확립되면 귀천이 질서를 잡고, 음악으로 화해한 즉 상하가 화목한다(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 禮義立則貴賤等矣; 樂文同則上下和矣).⁴⁹⁾

47) 朱熹, “史, 掌文書, 多聞習事, 而誠或不足也.” 朱熹, 앞의 책, 1983, 89쪽.

48) 許慎, 《說文解字》, “份, 文質備也.”, “彬, 古文份.” 湯可敬, 앞의 책, 1997, 1071-1072쪽.

정현(鄭玄) 주(註), “예악을 빈빈하게 병행하고자 함이다(欲其並行斌斌然). …… 斌은 판본에 따라 彬으로도 되어 있다(斌, 本又作彬).”⁵⁰⁾

— 《예기·악기(禮記·樂記)》

예악은 동화(同)와 구분(異)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文)의 제도적 작동으로 볼 수 있고, 그 기능은 사회 신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즉, 예와 악은 정서(情)라는 질(質)에 작용하여 각각 차이(異)과 동화(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층 정서를 친함(親)과 공경(敬)에 배치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따라서 예악으로 형성된 상태를 문질 구조에 비추어 해석해 본다면, 악의 동화 작용이 예의 구분을 압도하면 정(情)의 친함이 신분 질서(文)를 범하여 흐르는(流) 야(野)의 상태에 이르고, 예의 구분 작용이 과도하여 정을 압박하면 결합의 감정이 사라져 신분 질서(文)가 정서(質)와 분리(離)된 사(史)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 정현이 말한 ‘빈빈(彬彬)’은 예악이라는 문의 형식 속에서 정(情)이라는 질(質)이 소거되지 않은 채 신분 질서인 문(文)과의 긴장된 공존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송학에서의 ‘빈빈(彬彬)’은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損有餘, 補不足)”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수양의 결과이다.⁵¹⁾ 즉, 도덕 본성인 질(質)이 학문으로서의 문(文)으로 정제되어 균형을 이룬 ‘적균(適均)’⁵²⁾의 상태를 지칭하는 수양의 결과를 지칭하는 언어다.⁵³⁾ 또한 문과 질의 관계

49)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注疏》 卷二十八, 《文淵閣四庫全書》.

50)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注疏》 卷三十七, 《文淵閣四庫全書》.

51) 朱熹, “猶斑斑, 物相杂而适均之貌. 言學者當損有餘補不足. 至於成德, 則不期然而然矣.” 朱熹, 앞의 책, 1983, 89쪽.

52) 朱熹, “適均之貌”. 朱熹, 앞의 책, 1983, 89쪽.

53) 朱熹, “聖人之言, 雖是平說, 自然周遍, 亭亭當當, 都有許多四方八面, 不少了些子意思, 若門人弟子之言, 便有不能無偏處. 如夫子言“文質彬彬”, 自然停當恰好. 子貢“文猶質也, 質猶文也”, 便說得偏. 夫子言“行有餘力, 則以學文”, 自然有先後輕重, 而子夏“雖曰未學, 吾必謂之學”, 便有廢學之弊.” (朱熹, 《朱子語類》 卷第十九, 《文淵閣四庫全書》)

에서 문이 질을 압도하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⁵⁴⁾ 이것은 질의 원천성이 문의 권위적 의미화와 재배치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문질 관계에서 질의 원천성 혹은 근본성의 보존을 강조한다.⁵⁵⁾ 따라서 송학에서의 문질 관계 역시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질의 근본성이 문의 형식성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긴장 상태가 요청되고 있다.

3. 문질(文質) 결합 구조의 특징

1) 질(質) 우선성

앞선 장에서는 질의 문자 구조를 통해 질이 문을 유지하는 윤리적 하부 토대임을 규명하였다. 아래에서는 문질 관계에서 질의 성격이 문의 근본 전제로서 문에 의해 은폐될 수 없으며, 우선적 보존이 필요한 존재의 바탕임을 고찰한다.

《논어》에서는 질의 윤리 토대가 ‘예’라는 문의 규범화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사람이면서 불인(不仁)하다면 예(禮)를 어디에 쓰겠는가? 사람이면서 불인(不仁)하다면 악(樂)을 어디에 쓰겠는가(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 《논어·팔일(論語·八佾)》

어떤 사람의 질(質)이 불인(不仁)이라면, 문(文)에 속한 예악(禮樂)은 쓰일 곳이 없다. 이는 언행이 아무리 세련되어도 내적 진실성이 없다면 문의 작용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仁)은 주체의 윤리적 질(質)이

54) 楊時, “文質不可以相勝, 然質之勝文, 猶之甘可以受和, 白可以受采也。文勝而至於滅質, 則其本亡矣。雖有文將安施乎? 然則與其史也, 寧野。” 朱熹, 위의 책, 1983, 89쪽.

55) 朱熹, “洪氏曰: ‘未有餘力而學文, 則文滅其質; 有餘力而不學文, 則質勝而野.’ 愚謂力行而不學文, 則無以考聖賢之成法, 識事理之當然, 而所行或出於私意, 非但失之於野而已。” 朱熹, 앞의 책, 1983, 89쪽.

며, 언행이 예악(禮樂)이라는 문(文)의 형식 속에 위치하기 위한 근본 전제임을 드러낸다.⁵⁶⁾

둘째, 질은 문에 의해 은폐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문은 절제되어야 한다. 임방(林放)이 예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는 사치하기보다 차라리 검소하며, 장례는 절차를 잘 처리하기보다 차라리 슬퍼하겠다(禮, 與其奢也, 寧儉. 喪, 與其易也, 寧戚)

— 《논어·팔일(論語·八佾)》

인간의 덕성(質)은 형식적 사치(文)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검소함이라는 절제를 통해 통해 더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장례의 절차(文)는 슬픔(質)을 그 속에 담아야 하며, 장례 형식이 슬픔의 윤리 감정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글은 문의 과잉이 질을 은폐하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를 통해 문의 절제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실질로서의 질은 형식화인 문에 우선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아래 예문은 이러한 경향을 공자의 판단을 통해 보여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진(先進)은 예악에 야인이고, 후진(後進)은 예악에 군자이다. 만약 선택한다면 나는 선진을 따르겠다(子曰: 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於禮樂, 君子也. 如用之則吾從先進).

— 《논어·선진(論語·先進)》

이 구절은 주석가 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문자의 위치 구조로 의미를 해석한다. 여기서 야인과 군자는 문의 작용 결과를 기준으로한 평어이며, 예악은 문화적 규범화를 진행하는 장치이다. 선후(先後)는 임관의 선후⁵⁷⁾, 전배와 후배⁵⁸⁾, 혹은 시대의 문제⁵⁹⁾ 등으로 해석되는데, 야인과 군자라는

56) 邢昺, “此章明禮之本意也.” 邢昺, 앞의 책, 2000, 32쪽.

57) 孔安國, “先進、後進, 謂仕先後輩也.” 邢昺, 《論語注疏》, 앞의 책, 1999, 142쪽.

58) 朱熹, “先進、後進, 猶言先輩後輩.” 朱熹, 《四書章句集注》, 앞의 책, 1983,

평어로 인해 선진에는 야(野)의 속성이, 후진에는 빈빈(彬彬)의 속성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⁰⁾ 이 구도에서, 선진을 따르겠다는 공자의 선언은 앞에 배치된 야인과 군자의 평가 위계를 전도시킨다. 즉, 공자는 군자라는 상징 형식의 완비된 존재보다 야인으로 의미되는 도덕적 실질의 보존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⁶¹⁾

이처럼 질은 문(文)의 윤리 기층이자 형식화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문(文)의 형식화에서 그 실질이 은폐되지 않도록 문(文)의 형식이 조절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선적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윤리 실질이다.

2) 문(文)의 규범성과 제한된 접근

문(文)의 질(質)에 대한 형식화와 가시화 문제는 앞서 《논어·헌문(論語·憲問)》의 “예악으로 문채나게 한다(文之以禮樂)”는 구절을 통해 규명했다. 여기서는 문(文)의 작동 구조를, 규범적 내용과 형식의 제한이 질을 일정한 형태로 고정하는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文)은 질을 형식화하는 장치이지만, 그 형식화는 자율적이지 않다. 사달(辭達)은 내용의 규범적 권위를 형식에 우선함으로써 언어의 수사 기능을 제약한다.

말은 뜻을 전달하면 된다(辭達而已矣).

— 《논어·위령공(論語·衛靈公)》

공안국(孔安國)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3쪽.

59) 皇侃, “先進後進者, 謂先後輩人也. 先輩謂五帝以上也, 後輩謂三王以下也.” 皇侃, 《論語集解義疏》卷六, 知不足齋叢書本 第七集.

60) 程子, “先進於禮樂, 文質得宜, 今反謂之質樸, 而以爲野人. 後進之於禮樂, 文過其質, 今反謂之彬彬, 而以爲君子.” 朱熹, 앞의 책, 1983, 123쪽.

61) 程子, “蓋周末文胜, 故時人之言如此, 不自知其過于文也.” 朱熹, 위의 책, 1983, 123쪽.

무릇 일이 실재를 지나쳐서는 안 되므로 말은 뜻을 전하면 충분하고, 꾸며낸 아름다운 말로 번잡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凡事莫過於實, 辭達則足矣, 不煩文豔之辭).⁶²⁾

— 하안(何晏), 《논어집해(論語集解)》

따라서 이러한 제약은 문이 질을 이기는 사(史)의 과잉을 경계한 것이며, 주희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한다.

언어는 뜻의 전달을 취하는 데서 그치고 풍부함이나 화려함을 뛰어난 것으로 삼지 않는다(辭, 取達意而止, 不以富麗爲工).⁶³⁾

따라서 사달은 표현 형식이 뜻의 전달을 넘어서 과잉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언어 윤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가적 언어관은 성인이 창작한 근본적 문의 규범성이 그의 언어의 표현을 제약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처럼 문은 표현 과잉을 제한하는 규범이면서, 동시에 누가 그 문을 생산하고 전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술이부작(述而不作)”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 자체보다, 무엇을 어떤 자격으로 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주체 규범을 드러낸다.

서술하기만 하고 창작(創作)하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한다. 이러한 점을 나의 노팽(老彭)에 비겨본다(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 《논어·술이(論語·述而)》

술(述)과 작(作)은 각각 “전하다(轉述)”와 “창작하다(創作)”로 구분된다.⁶⁴⁾ 그런데 이러한 문에 대한 통제는 성인과 현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62) 邢昺, 앞의 책, 2000, 248쪽.

63) 朱熹, 앞의 책, 1983, 170쪽.

64) 朱熹, “述, 傳舊而已, 作, 則創始也.” (朱熹, 위의 책, 1983, 93쪽)

있다.

창작은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전하는 것은 현자라야 할 수 있다. …… 공자(孔子)께서는 《시》·《서》를 산정하시고, 《예》·《악》을 정리 하셨으며 《주역(周易)》을 해설하셨고 《춘추》를 수찬하셨는데, 이는 모두 선왕(先王)의 옛것을 전한 것이지 창작한 것이 없다. …… (故作非聖人不能, 而述則賢者可及. ……孔子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皆傳先王之舊, 而未嘗有所作也).⁶⁵⁾

이처럼 주희는 창작의 권리를 성인에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현자에게 한정적으로 부여한다. 즉 유가 전통에서 작(作)은 성인의 창작 권한이며, 술(述)은 현자의 전승 권한이다. 여기에 문은 형식의 자율성보다 전승의 정당성으로 규율되며, 이러한 점은 문이 생산과 전승 주체를 규범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하지만, 언어가 완전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자는 “옛것을 좋아하고 믿는 사람(信而好古)”이므로 서술에 주관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다.⁶⁶⁾ 무엇보다 공자는 시서(詩書)를 산정했다. 이는 분명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원칙에는 어긋나 있지만, 유가에서는 공자의 산정을 인정한다.⁶⁷⁾

따라서, 유가는 공자에게 성인의 뜻을 왜곡 없이 시대의 예악에 적합한 형태로 재조직하여⁶⁸⁾ 작(作)과 술(述) 사이의 해석적 긴장을 조율하는 산정(刪定)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유가 전통에서 성인과 공자는 예

65) 朱熹, 위의 책, 1983, 93쪽.

66) 李澤厚, 《論語今讀》, “但任何‘述’中都有‘作’, 孔子以‘仁’解‘禮’, 便是‘作’. 實際上孔子是‘述而又作’. ‘述’者, ‘禮’也; ‘作’者, ‘仁’也. ‘作’是爲了‘述’, 結果卻超出了‘述’.” (李澤厚, 앞의 책, 124쪽)

67) 朱熹, “然當是時, 作者略備, 夫子蓋集群聖之大成而折衷之. 其事雖述, 而功則倍於作矣.” (朱熹, 위의 책, 1983, 93쪽)

68) 司馬遷, 《史記·孔子世家》, “古者《詩》三千餘篇, 及至孔子, 去其重, 取可施於禮義.”

외적인 존재로 분류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존재는 문(文)에 개입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유가는 문의 창작 주체와 전승 주체를 통제함으로써 문의 규범성을 보존한다. 이 과정에서 성인과 현자는 질서의 규범성과 긴밀히 결부된 전승 주체로서 문의 생산과 전수를 전담하는 상징적 존재들이다. 따라서 유가의 문은 규범성을 체현한 것으로 승인된 존재가 생산하고 전수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문의 생산과 전승이 규범성을 승인받은 주체에게 독점되면서, 질은 문이 규정한 형식을 통과해서만 자신을 표현하도록 있으며, 개별적 경험이나 자생적 실질의 형태로 문의 형성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은 축소된다.

그 결과 질은 문을 새로 산출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문의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증자의 “삼성(三省)”⁶⁹⁾은 이러한 내면화된 자기 수정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그의 반성은 타인을 위한 도모에서의 충, 교유에서의 신, 전수된 가르침의 학습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두 이미 주어진 규범에 자신을 맞추는 형식이다. 다시 말해서, 반성이란 규범 자체의 정당성을 재설정하기보다 그 규범에 대한 실천적 정합성에 대한 실패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질은 승인된 문에 자신을 형식화하도록 요구되며, 문의 규범을 질 스스로 구성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 상태에 놓인다.

3) 질의 윤리와 문의 생성

앞선 두 논의는 질과 문의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즉, 질은 문의 기반으로 질이 없으면 문이 성립하지 못하며, 문에 대해 우선성을 지닌다. 하지만, 질은 질서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문의 형식화를 거쳐야 하므로, 질의 바탕성을 은폐 혹은 소실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

69) 《論語·學而》,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한 문제는 《논어·안연(論語·顏淵)》에 기록된 극자성(棘子成)과 자공(子貢)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극자성이 말했다. “군자는 질(質)하면 될 뿐이다. 문(文)을 어디에 쓰겠 습니까?” 자공이 말했다. “애석하군요. 선생의 말씀은 군자답지만, 네 필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로도 혀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문(文)이 질(質)과 같으며, 질(質)이 문(文)과 같으니,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도 털을 제거하면, 개나 양의 털 없는 가죽과 같을 것입니다(棘子成曰：“君子質而已矣，何以文為？”子貢曰：“惜乎，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文猶質也，質猶文也。虎豹之鞞猶犬羊之鞞。”)”

— 《논어·안연(論語·顏淵)》

극자성은 질의 자족성을 주장함으로써 문을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자공은 질이 문이란 상징적 형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회적 의미로 드러나 지 못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이 대화는 질의 우선성과 문의 고정화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질의 자율성과 문의 고정화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는 질의 윤리성을 통해 조율된다. 《춘추(春秋)》와 관련한 사마천(司馬遷)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로는 노나라 은공에서 아래로는 애공 14년까지 12대 공을 기술했다. 노나라 역사에 근거하여, 주나라를 종주로 하고 은나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하(夏)·상(商)·주(周) 3대의 법을 계승하고 있다. 그 글은 간략하지만 제시 하고자 하는 뜻은 넓다. 그래서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주가 왕을 자칭하였지만 《춘추》에서는 그것을 낮추어 본래의 작위인 자작(子爵)으로 칭하였다. 천토(踐土)의 회맹(會盟)은 실제로는 제후가 주나라의 천자를 부른 것이지만, 《춘추》에서는 그 사실을 피해서 “천자가 하양(河陽)으로 수렴을 나가셨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런 사안들을 들어서 당세의 법통을 바로잡는 기준으로 삼았다(上至隱公，下訖哀公十四年，十二公。據魯，親周，故殷，運之三代。約其文辭而指博。故吳楚之君自稱王，而《春秋》貶之曰子；踐土之

會實召周天子，而《春秋》諱之曰，天王狩於河陽。推此類以繩當世，貶損之義，後有王者舉而開之。《春秋》之義行，則天下亂臣賊子懼焉。

— 《사기·공자세가(史記·孔子世家)》

공자는 노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열한다. 이것은 지역 역사서로 천하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며, 제후가 역사의 주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그런데 공자는 《춘추》에 제후들이 자신들을 왕이란 호칭으로 사용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주나라 작위제도에 따라 기록했으며, 제후들이 주나라 왕을 부른 사건을 왕이 수렴을 나갔다고 바꾸어 서술했다. 이것은 사실의 가감없는 전달인 술(述)의 원칙을 위배한 듯 보이며,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의적 재구성으로서 부작(不作)의 원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역사 서술의 객관성이란 입장에서, 《춘추》는 시대 현상인 질(質)을 주나라 질서인 문(文)으로 가공한 사(史)의 과잉이 아닌가? 하지만, 춘추 시대 주나라 질서의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은 두 개의 문(文)을 형성했다. 하나는 제후들이 장악한 현실 권력의 문(文)이고, 또 하나는 공자의 의(義)가 재구성한 주나라 규범의 문(文)이다. 따라서, 공자의 《춘추》는 그가 구상한 주나라 문(文)을 술(述)의 규범으로 삼고, 이 원칙에 반하는 당시 시대 현실인 질(質)을 산정 권력이 존재하는 부작(不作)을 통해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 된다.

이러한 공자의 종주(宗周) 원칙이 《춘추》의 의(義)로 성립하는 이유는 주나라 권위가 쇠퇴한 시점에서 현실을 장악한 제후의 문(文)에 대한 비판성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文)의 권력 보존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질(質)의 선행적 의(義)를 볼 수 있다.

군자(君子)는 의(義)로써 바탕을 삼고, 예(禮)로써 그것을 행하며, 검손함으로써 그것을 내보이며, 신(信)으로써 그것을 이루나니, 이것이 군자(君子)이다(君子義以爲質，禮以行之，孫以出之，信以成之，君子哉).⁷⁰⁾

— 《논어·위령공(論語·衛靈公)》

위의 글에서 군자는 질(質)의 의(義)에 기반하여 예(禮)라는 문(文)의 형식을 수행하는 자다. 이것은 예가 수행하는 형식이 의(義)를 통해 검증된 이후에 겸손을 통해 표현되며, 신(信)을 통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⁷¹⁾ 따라서 문질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문은 상징 질서로서 질을 고정화시켜 사회적 가시화를 진행한다. 이때, 질은 신(信)의 기능을 통해 문의 압력을 견디며 문을 유지하고 양산하지만, 의(義)를 통해 문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한다. 따라서 문(文)이 의(義)에 부합할 때 질은 신(信)을 요청하여 문을 유지하지만, 문(文)이 의(義)에서 벗어난 경우, 신(信)의 요청을 철회하고, 의(義)에 따른 문(文)의 수정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종주(宗周)는 현실 권력적 문에 대한 의(義)의 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윤리 판단이 형식과 모순을 형성할 때 윤리 판단을 우선한다. “인에 임에 임하여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當仁不讓於師)”(《논어·위령공》)는 예의 겸양보다 인의 실천이 우선함을 선언하고 있다. 즉, 문의 질에 대한 형식화는 질의 의(義)에 기반한 윤리성 판단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따라서, 공자의 《춘추》는 현실 권력인 제후의 문을 비판하고, 제후 계계모니를 반영하는 현실(質)을 주나라 문의 규범에 따라 재구성할 근거를 의(義)에 근거하여 형성한다.

공자의 의(義)에 관한 해석은 실천적 맥락의 당위(當爲)로 해석될 수 있다. 의의 당위는 공동선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주체는 관계가 부여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그 실천은 사회적으로는 불의를 정명(正名)과 예·덕으로 교정하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완성을 지향한다.⁷²⁾

70) H.G 크릴, 이성규, 《공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83, 93쪽.

71) 蔡清, 《論語蒙引》卷三, “義以為質是根本, 禮行、遜出, 信成就是就此上加料理. ……”, 蓋謂禮行者義之所當行者, 遜出者義之所當出, 信成者亦義之所當成者也.” 高尚榘, 《論語歧解輯錄》, 北京: 中華書局, 2011, 828쪽. 楊朝明(現代), “君子以義作為辦事的根本, 用禮儀來實行它, 用謙遜的態度來表達它, 靠誠信來完成它. 這才是真正的君子.” 楊朝明, 《論語詮解》, 揚州市: 廣陵書社 2008, 148쪽.

72) 이경우, ‘의’와 공자 인학, 《범한철학회》 제50집, 2008, 53-54쪽.

이러한 의(義)에 관한 해석을 문질관계로 본다면, 의(義)는 공동선으로 표현되는 문(文)의 가치를 위해 문(文)이 배치하는 역할의 형식적 정합성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질(質)의 의(義)는 예(禮)의 정합성 판단에 대한 요청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선으로 표현되는 문(文)의 의와 불의까지 판단을 요청하므로, 이것은 공자의 종주(宗周)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보편성을 지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⁷³⁾

공자의 종주(宗周)가 보편적 선(善)인가의 문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⁷⁴⁾ 문질 관계에서 의를 통한 문의 정합성 판정 형식은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회의할 수 있는 윤리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질(質)의 의(義)가 문(文)의 바름을 판단하는 구조는, 문질 관계가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긴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유가의 윤리 수행은 증자(曾子)의 “임중도원(任重道遠)”처럼 완결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지속되는 구조이다.⁷⁵⁾ 여기에서 질은 문의 형식화 잔여이자 구조적 긴장으로 작동하면서, 문의 형식화에 존재하는 합리성과 위계성을 회의하는 윤리 판단의 계기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동선을 규정하는 대신, 이를 지속적으로 회의하는 사유 구조를 제시하며, 동시에 유가의 윤리 구조를 권위나 조화가 아닌 긴장으로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I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文)과 질(質),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평가하는 야(野)·사(史)·빈빈(彬彬)의 상징 의미는 다음과 같다.

73) 이 문제의 고찰은 금중현, <질서와 분배의 측면에서 義개념의 연속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제107집, 2021)에서 시도되지만, 이것이 보편 원리인지 아니면 문화적 특수성 안에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74) 《論語·陽貨》, “子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鐘鼓云乎哉?’”

75) 《論語·泰伯》

문은 형식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문은 질을 가시화하고 조정하는 상징 질서이며, 동시에 권력적 작동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문은 질의 장식이라기 보다는, 질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상징 질서이다.

문의 상징 질서화 과정에서 질이 문에 포섭되지 못하면 상징화 실패로서 야가 되고, 문이 허구의 의미 상징으로 존재한다면 사가 된다. 이러한 평어에는 문의 우월성에 근거한 질의 폄하가 투영되어 있다. 비록 사를 통해 문의 허구성을 비판하지만, 질을 상징화하는 문에 대한 규범적 인가와 권력을 부여하는 문화 권력적 평어들이다.

질에는 문의 바탕, 가능 형태, 규범성으로서의 질이라는 세 층위가 있다. 우선 바탕으로서의 질은 박(樸)·소(素)처럼 가공 이전의 자연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윤리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토대이다. 문의 가능 형태로서의 질은 예악의 학습을 통해 상징 질서로의 편입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질로서 피동적인 성신(誠信)의 윤리가 요청된다. 그리고 문의 규범성으로서의 질은 군자의 질로서 문의 정당성 판단을 진행하여 문의 유지와 수정 요청이라는 능동적 주체성을 보인다.

문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동한다. 질이 없다면 문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이라는 형식화가 없다면 질은 사회적 의미로 조직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질의 긴장 구조는 문의 형식화의 압력 하에서의 질의 실체성 유지라는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질의 문에 대한 규범성 판단을 지속하게 한다. 비록 《예기》나 《중용》 등의 문헌에서는 조화를 중시하지만, 《논어》에는 문질의 긴장이 여러 곳에 드러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빈빈(彬彬)은 문의 질에 대한 완전한 형식화라기 보다는, 문의 형식화의 압력 속에서 질의 실질성이 소멸되지 않고 문과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로 파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질 관계의 긴장이 문의 형식화 과정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질의 잔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의 잔여는 질의 의가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상징 질서와 윤리 감정의 긴장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유가 윤리는 ‘친친(親親)’ 혹은 맹자의 ‘사단(四端)’처럼 관계적

감응에 근거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가족 윤리 감정과 국가 상징 질서의 긴장이 의(義)를 발생시키는 지점을 제시한다.⁷⁶⁾ 다만, 본 연구는 문질 상징 구조에 대한 고찰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질의 의가 발생하는 조건과 구조에 대한 고찰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 참고문헌 >

- 김중현, <질서와 분배의 측면에서 義개념의 연속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제107집, 2021.
- 南相鎬, <공자의 문질彬彬(文質彬彬)적 수양실천론>, 《中國哲學》, 제3권, 1992.
- 南相鎬, <孔子的 文質彬彬的 文道論 研究>, 《국제한국학저널》, 제3집, 2017.
- 심영옥, <공자의 문질彬彬 심미관과 조선시대 문인화론의 관계성 연구>, 《동양예술》, 제25호, 2014.
- 안기섭, <楚簡本 『老子』의 ‘道’에 대한 바른 이해> 제68호, 《중국인문과학》, 2018.
- 이경우, <‘의’와 공자 인학>, 《범한철학회》 제50집, 2008.
- 李相宜, <의미작용의 관점에서 본 공양전과 좌전의 해석체계>, 《중국문학》 제41집, 2004.
- 이승모, <공자의 정의관에 대한 일고찰 -‘의’와 ‘정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84집, 2015.
- 임현규, <孔子的 ‘爲己之學’의 이념과 방법>, 《동양고전연구》 제36집, 2009.
- 조송식,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유가 문질론(文質論)의 수용과 변환>, 《미학(美學)》, 제82권, 2016.

76) 《論語·子路》, “父為子隱, 子為父隱, 直在其中矣.”

- 진예숙, <《論語》引用詩의 詩教論的 理解 -孔子의 學問觀과 文質論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33집, 2016.
- Jiangyingshun·신창호, <인격형성에 관한 공자의 교육방법 고찰: 예악(禮樂) 교육의 미육(美育)적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학》, 제43호, 2020.
- 채오병, <부르디외의 국가: 상징권력과 주체>, 《문화와 사회》, 제26권, 2018.
- H.G 크릴, 이성규, 《공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83.
- 黃娟, <“文質彬彬”辯>, 《중국언어연구》 제116집, 2025.
- 班固, 《漢書》. 《文淵閣四庫全書》,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程樹德 撰, 程俊英·蔣見元 點校,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0.
- 高尚榘, 《論語歧解輯錄》, 北京: 中華書局, 2011.
- 黃娟, <“文質彬彬”辯>, 《중국언어연구》 제116집, 2025.
- 胡安順 主編, 《說文部首段注疏義》, 北京: 中華書局, 2018.
- 李澤厚, 《論語今讀》, 天津: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7.
- 李學勤 主編, 《字源》,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2.
- 馬曉玥, <《論語》“文質彬彬”研究綜述>, 《開封文化藝術職業學院學報》 第41卷 第3期, 2021.
- 南懷瑾, 《論語別裁》, 復旦大學出版社, 1990.
- 司馬遷, 《史記》,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長沙: 岳麓書社, 1997.
- 王鳳陽, 《古辭辨》, 北京: 中華書局, 2011
- 何晏 集解, 邢昺 疏,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論語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何晏 集解, 邢昺 疏, 朱漢民 整理, 張豈之 審定,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張居正, 《論語別裁》, 岳麓書社, 2004.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注疏》, 《文淵閣四庫全書》,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楊朝明, 《論語詮解》, 揚州市: 廣陵書社, 2008年.

朱熹, 《新編諸子集成·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Wen zhi bin bin in the “Yong Ye” chapter of the Analects as a symbolic structure embedded in socio-cultural and political power relations. Zhi is defined as the normative ground of ethical practice, while Wen is understood as a mechanism of formalization—ritual, institutions, language, and textual practice—that operates as a technology of symbolization. Within this framework, Ye denotes the failure of symbolization when Zhi remains outside Wen, whereas Shi signifies excessive formalization devoid of normative substance. Bin-bin thus does not represent a fixed harmony between substance and form, but a regulated tension in which Zhi, while mediated by Wen, retains its normative authority. Through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shuer bu zuo and the narrative strategies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is study argues that Wen functions not merely as a medium expressing Zhi but as an interpretive structure that reconstructs and regulates it. Wen zhi bin bin therefore designates a structural condition in which ethical substance becomes socially visible through symbolic mediation, sustained only insofar as Yi continues to operate as a normative criterion.

Key Words : 질(Zhi), 문(Wen), 야(Ye), 사(Shi), 빈빈(Binbin), 상징 권력
(Symbolic Power), 의(Yi), 질의 윤리성(Ethical Ground of
Zhi)